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상편 ◀

1. 문학과 삶

(1) 문학의 기능과 가치

- *봄눈 오는 밤 (47문제)-----1쪽
- *19세 (46문제)-----23쪽
- *풀 비린내에 대하여 (20문제)-----56쪽

(2)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 *쉽게 씌어진 시 (45문제)-----72쪽
- *보리타작 (40문제)-----95쪽
-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35문제)-----112쪽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 *산유화 (52문제)-----139쪽
- *속미인곡 (55문제)-----163쪽
- *유자소전 (39문제)-----195쪽

(2) 문학과 인접 분야, 문학과 매체

-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25문제)-----225쪽
- *뿌리 깊은 나무 (22문제)-----242쪽

◆빠른 전체 정답-----265쪽

◆해설-----268쪽

교재 버전: 2021.02.01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봄눈 오는 밤” 분석 정리

정리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감각적, 서정적, 심미적
제재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주제	봄눈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
특징	① 의인법, 중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②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구성	1연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2연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3연	나무의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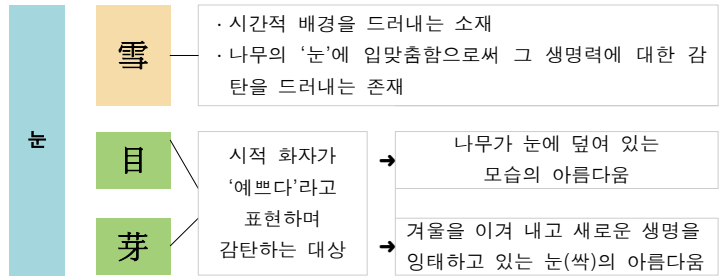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 **봄눈** ① 시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② 나무의 ‘눈’에 입맞춤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는 존재
- * **감은 눈**: 시적 화자가 ‘예쁘다’라고 표현하며 감탄하는 대상. 이때 눈은 감각 기관인 눈 [目] 과 초목의 싹’을 뜻하는 눈 [芽] 으로 볼 수 있다.

■ 시의 중심 내용



■ ‘눈’의 의미



■ 이 시의 의미 구조



■ 시간적 배경 ‘밤’

시적 화자가 설정한 시간적 배경인 ‘밤’은 시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고, 하얀 눈과 대비되어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1-(1) 봄눈 오는 밤 [이론편]

■ 이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

의인법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게 하는 방법	
	[예시]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쁘지.	[예시] 눈송이들이 졸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중의법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돈호법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방법	
	[예시] 너, 아니?	
영탄법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예시]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봄눈 오는 밤>으로 살펴 본 문학의 심미적 가치와 기능

<봄눈 오는 밤>에 담긴 문학의 심미적 가치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그린 시를 감상하며 심미적인 측면을 통해 정서적으로 고양됨.
↓	
문학의 심미적 기능	· 문학 활동을 통해 삶을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할 수 있음. ·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름의 정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과 쾌감을 느낌.

<봄눈 오는 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섬세한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1연에서는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하였고, 2연에서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였으며, 3연에서는 그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눈이 졸달음쳐 온다고 상상하며 자신도 눈처럼 그러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 '감은 눈'의 '눈'은 의인화된 나무의 눈(目)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을 뜻하는 눈(芽)으로 볼 수도 있다. '감은 눈'이라는 시구는, 앞의 경우라면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뒤의 경우라면 나무의 눈(芽)이 봄을 맞아 막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 눈'의 '눈'은 의인화된 나무의 눈(目)으로 볼 수도 있고, ... 나무의 눈(芽)이 봄을 맞아 막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감은 눈'의 중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눈'을 의인화된 나무의 눈(目)으로 이해한다면 '감은 눈'은 나무가 봄밤을 배경으로 봄눈에 덮여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봄밤에 눈을 맞은 나무가 고즈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한편 '눈'이 초목의 싹을 의미하는 눈(芽)이라면 '감은 눈'은 나무의 눈이 봄을 맞아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눈송이들'이 이러한 '감은 눈'에 입 맞추려 한다는 것은 봄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과 예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 제재

계절적 배경: 초봄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 나무 아래에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는 않았음을 나타냄. ▶ 1연: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네의 예쁜 감은 눈. - 중의적 표현: ①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어, 눈(目)을 감은 상태
② 봄을 맞아 싹(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네, 아니?

사람을 부르듯 대상(나무)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함.(돈호법)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 2연: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 ① 나무를 '너(네)'라고 지칭하며 의인화함.
②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음.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눈송이들이 나무 위로 내리는 모습(의인법)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화자의 공감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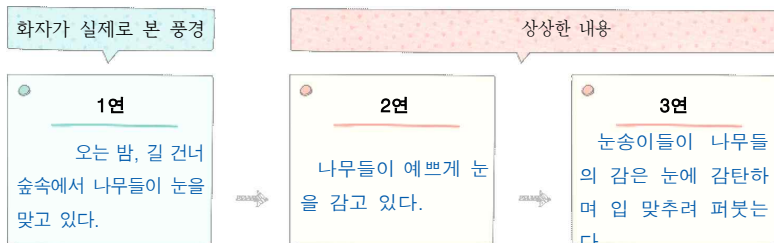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3연: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 심표 사용과 행갈이, 영탄법을 통해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눈'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음.

“봄눈 오는 밤” 학습 활동 문제 모음

1.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봄눈 오는 밤” 구절 풀이

1연 |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

눈 오는 봄날 밤, 시적 화자는 길 건너에 있는 숲속에서 눈을 맞고 있는 나무를 바라본다. 봄눈이 오고 있고, 아직까지 풀이 말라 있다는 것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초봄임을 알 수 있다.

1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 발치가 하얗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고 있다는 것은 나무 아래에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는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2연 |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시적 화자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나무의 감은 눈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여기에서 ‘눈’은 이중의 의미를 지니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2 예쁜 감은 눈. / 너, 아니?

화자는 나무를 가리켜 ‘너’라고 하고,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하며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다. 나무의 ‘감은 눈’은, ‘눈’을 감각 기관인 ‘눈(目)’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눈’을 ‘초목의 싹(芽)’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감은 눈’은 아직 싹트지 않았으나 곧 싹을 내밀 ‘눈(芽)’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눈에 덮인 나무의 ‘눈(目)’이든, 봄을 맞아 싹틀 준비를 하고 있는 ‘눈(芽)’이든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 한편 ‘너, 아니?’라는 시구에는 의인법과 돈호법이 모두 쓰였는데, 사람을 부르듯 대상(나무)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3연 |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시적 화자는 눈송이가 나무 위로 내리는 모습을 보며 봄눈이 나무의 감은 눈에 입맞추려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움의 감지에서 생겨난 심미적 감흥을 감각적인 언어와 의인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잘 표현하였다.

3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의인법을 활용하여 눈송이들이 나무 위로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구절이다. 입맞춤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그 대상과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4 나라도 그럴 것이다! / 오, 네 예쁜, 감은 눈, / 에 퍼붓는 봄눈!

봄눈이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듯 퍼붓는 모습에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심포 사용과 행갈이, 영탄법을 통해 봄눈과 나무의 ‘눈’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A]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인천고등학교 (인천)

1.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③ ㉢ : 나무가 봄눈에 덮여있어 눈[目]을 감은 상태와 봄을 맞아 싹[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모두를 의미한다.
- ④ ㉣ : 나무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감탄하는 화자의 공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 심포 사용과 행갈이, 도치법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산)

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느껴지는군.
- ② 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⑤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고등학교 (인천)

3.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붙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바람은 넘실 천(千) 이랑 만(萬)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일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아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시적 대상을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
- ② 계절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③ 인간과 자연을 대조하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을 제시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변 경관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4.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국화야 너는 어찌하여 따뜻한 봄이 다 지난 후에 / 이렇게 추운 계절에 너 홀로 피어 있느냐 / 아마도 매서운 서리를 이겨내는 곳곳하고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 ②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 이별하고 /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 ③ 뭇버들 가지를 골라 꺾어 보냅니다. 임에게 / 주무시는 방의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 밤비에 새 잎이 나면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 ④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 나는 젊었으니 둘이라 한들 무거울까. / 늙는 것도 서럽다 하거늘 짐까지 지시겠는가.
- ⑤ 동기로 태어난 세 몸이 한 몸같이 지내다가 /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 날마다 석양 무렵 문 밖에 나가 한숨 겨워하노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심표 사용과 행갈이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6. <보기>는 '눈'의 사전적 정의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눈¹ [명사] 1.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눈을 뜨다.
 2. 시력.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 눈이 좋다.
 3. 사람들의 눈길
 ¶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눈² [눈 :] [명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눈³ [명사] 식물의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 꽃눈. 잎눈 따위.

- ① ㉠은 ㉡과 달리 짧은 소리로 소리 내야겠군.
- ② ㉠이 '눈³'의 의미라면, '싹'으로 바꾸어도 무방하겠군.
- ③ ㉡은 '눈¹-1'과 '눈²'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중의성을 띄고 있겠군.
- ④ ㉠과 ㉡은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 관계라 할 수 있군.
- ⑤ '눈¹'은 다의어이므로 ㉡은 '눈¹-1' 이외의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군.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7. 윗글에 사용된 수사법(修辭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별이 내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 ② 청산아, 왜 학처럼 야위었느냐
- ③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④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8.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찢려

빠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

- 함민복, '봄꽃'

<조건>

- 1. 공통점은 내용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십시오.
- 2. 차이점은 형식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송이들이 졸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하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9. 위 시에 대한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날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를 의인화하였다.
- ②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⑤ '밤'은 봄날의 밝은 이미지와 대비되어 심미적인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10. 위 시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은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다.
- ② ㉡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낼 수 있다.
- ③ ㉡은 ㉠의 모습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나무의 눈(目)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봄을 맞아 나무가 싹(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11. 위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꽃에게로 다가가면 / 부드러운음 / 짙려 //

빠거나 부은 마음 / 금세 //

환해지고 / 전해지니 //

봄엔 / 아무 /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

- ① 두 작품 모두 활유법을 이용해 봄의 생명력을 드러낸다.
- ② 두 작품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보기>는 침의 뽀족함을 통해 봄의 아름다움을 참신하게 표현한다.
- ④ 위 시는 자연을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두 드러진다.
- ⑤ 두 작품 모두 시적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동국사대부고 (서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대상에 대한 감흥도 달라지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청자의 설정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의 추상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④ 화자가 구체적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 ⑤ 시 전체에서 사용된 단정적 어조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동국사대부고 (서울)

13. 윗글의 핵심적 시어인 (㉠)은/는 발음상 동일하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어를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다면 시의 의미가 다채로울 수 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를 쓰고, 해당 시어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1) 봄눈 오는 밤

1.⑤

▶도치법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넣어둬, 패턴 공략◀

계절감 (★)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2.③

▶너(네)라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넨.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정적 vs 동적

- ㄱ. 정적: 차분, 고요, 내향적 등
- ㄴ. 동적: 활발, 명랑, 생기 발랄, 외향적 등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3. 의인법 vs 활유법 (★★★)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3.①

▶윗글에선 나무를 너(네)로 지칭하며 의인화하고, <보기>에선 산봉우리를 부르며 의인화함.

김영랑, <오월>

*주제: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봄날의 생명력
*해제: 이 시는 봄날의 자연 풍경을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화자의 눈은 '들길'에서부터 '마을, 들, 바람, 햇빛, 보리, 피꼬리, 산봉우리'를 향해 이동해 가면서, 이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여 약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마을로 통하는 황톳길은 붉은색으로,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색채 대비는 토속적인 마을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아울러 봄날의 생동감을 환기시켜 준다. 또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의 보리가 햇빛을 받는 모습에서도 봄의 생명력이 드러난다. 이런 생명력은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허리통' 등에 나타난 유음 'ㅇ'의 사용으로 운율감 있게 표현된다. 이어서 화자는 하늘을 정답게 나는 암수의 피꼬리를 통해 약동하는 봄날의 생기를 형상화한다. 특히 수놈이 암컷을 쫓아간다고 말함으로써, 봄이 지닌 새로운 생명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봄이 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산봉우리를 여인으로 의인화함으로써 대지의 생명력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봄의 생동감 넘치는 정경에 대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정경 자체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강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옳다, 1등급 조언◀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데 수험생들에겐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옳, 헛갈리지 마!◀

애상적 (★):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사랑스러운 감정 (×)

4.①

▶[A]와 ①은 대상에 대해 예찬함.

5.②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이 역동적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ㄹ.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ㄴ.선경후정: 경치+정서

ㄷ.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2. 역동적(★)

: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의 의미를 지님. 움직임(동사)과 관련된 표현이 일단 있어야 하지만 시에서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동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역동적인 분위기의 시는 대상의 움직임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도 그와 어울리게 밝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

3.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4.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6.④

▶㉠은 내리는 눈이며, ㉡은 사람의 눈이거나 초목의 싹이므로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음.

7.④

▶④에는 빗글에 사용된 의인법이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수사법(★)

1)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2)강조법: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열거법

3)변화법: 도치법, 설의법, 인용법, 대구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9.⑤

▶'밤'은 시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고, 하얀 눈과 대비되어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10.④

▶삶의 지혜하고는 상관없음.

▶응, 헛갈리지 마!◀

모호(애매) vs 중의 vs 모순 (★★)

*모호(애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11.⑤

▶위 시와 <보기>는 대상을 예찬하기에 ⑤가 가장 적절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12.④

▶너(네)라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15.②

▶시적 긴장감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적 긴장감 (★)

:표현 기교가 사용된 어려운 시어 해석에 집중할 때 생기는 마음가짐.

1) 시어의 의미 파악이 너무 쉬우면 시적 긴장감이 생기지 않음

2) 보통 '역설법, 반어법, 대조법' 이 사용되면 시적 긴장감이 생김.

3) <갈등>에 의해 형성되는 <소설의 긴장감>과는 다른 개념임

2. 시의 심상과 감각 (★★★)

ㄱ.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ㄴ.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ㄷ.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ㄹ.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ㅁ.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3.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